

남원시 국가예산 1927억원 확보

100대 중점관리사업 집중적 추진...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건립 등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년 국가예산 1,927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이 시장의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시는 남원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예산 100대 중점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86개 사업에 국비 1,052억원을 확보하였다.

건립(70억원)을 이용호국회의원, 김광수국회의원, 정운천국회의원, 박희승지역위원장 등 정치권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산악철도 10억원, 컨버전스센터 15억원을 증액시켜 산악철도는 19.6억원, 컨버전스센터는 2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를 누리과정과 쟁점법안 통과문제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예결위의 예산감액과 증액심사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화장품산업, 산악철도시범사업을 증액시켜서 더 의미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꾸준히 산악철도사업을 준비하였고

그 첫 단계로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투자하는 산악철도 시범도입(291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현재 국토부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기획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인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건립(70억원, 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에 내년에 국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수 있어 화장품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인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건립과 지리산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 국비를 확보한 것은 남원시의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앞으로 남원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 후속대책 마련

아스콘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 배출감소 위한 대책 등

남원시는 지난달 18일 이백면 내기마을 중앙암역학 조사결과와 보고회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 추진기로 하였다.

이날 조사결과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백도명 교수는 내기마을에서 발생한 폐암은 과거 아스콘공장 가동시 발생한 다핵방향족물질(PAHs)과 실내라돈 농도, 개인의 흡연력 등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 요인들이 상승 작용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중앙암역학 조사반에서는 3가지 권고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PM2.5 및 PAHs)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내기마을 주민들이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실내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 그리고 셋째, 해당지역 주민의 흡연현황을 파악하고 금연클리닉 등을 통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할 것 등이 있다.



남원시는 지난달 18일 이백면 내기마을 중앙암역학 조사결과와 보고회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 추진기로 하였다.

고안을 토대로 한 후속대책으로 현재 PM2.5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2017년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하여 다핵방향족물질(PAHs)을 전문기관에 검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특정유해물질에는 해당되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실내라돈 농도 저감을 위하여 교육·홍보용 팸플릿 200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기 알림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여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실내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는 편백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여 오염물질의 차폐 및 저감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박우정 고창군수 성공대상 수상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추진

박우정 고창군수가 '한국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시상식에서 군정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성공대상'은 (사)국민성공시대(대표 장원익)가 주관해 국정과제와 자치단체 등 분야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발굴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 인물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친자연·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 행복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은 그동안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에 고창인들 유적, 판소리와 농악 등 세계유산자원을 연계 결합해 관광자원화 하면서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창으로 입지를 다지는 데 적극 노력했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과 마을안길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군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업 맞춤형 지원책과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주제한 사항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의 변경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사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 행복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신임 본부장 추대

3년간 부분부장 재임한 박재만씨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송병섭)는 총회를 열고 신임 본부장으로 3년간 재임한 박재만 부분부장을 추대했다고 6일 밝혔다.



박재만 신임본부장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임실군주민자치협의회장, 임실군체조협회장, 다문화가족 센터 예비과 원장 등 다양한 단체를 역임하며 유기적으로 이끈 능력을 인정

받아 애향운동본부장으로 추대됐다.

박재만 신임 본부장은 "지난 50년 동안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섬기는 자 원봉사자 마음으로 살아온 정신으로 '강하고 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여'라는 애향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며 임실인의 긍지를 살리고 고창사랑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을 애향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애향운동 실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군민회관 지하 예식실에서 애향 대상 시상 및 애향운동본부장이 취임식을 갖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회특간사

남원경찰 교통통제 표지판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지난 5일 겨울철 폭설 및 정령지 교통통제관련 표지판 및 관련 시설을 점검에 나섰다.

동절기 정령지 운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17년 3월 13일까지 주천면 고기리3가부터 정령지 경우 산내면 달궁 3가에 이르는 총12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예상하지 못한 폭설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차 등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오상섭 경비교통과장은 "남원경찰과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폭설로 인한 남원지역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겨울철 교통안전관리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조사로 안전생산 기술지원

임실군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조사료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사료 안정 생산을 위한 현장 실천 기술 지원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파종된 사료작물의 수확률 증가를 위해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고인 곳이 없도록 하고 습기에 약한 정보리와 호밀은 배수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밀겨름은 시기가 늦어진 경우 신속하게 시비를 마쳐야 월동 전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땅을 눌러 주면 겨울철 마름 피해가 적고, 서릿발로 인한 뿌리 절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지치기가 좋아져 봄철 재생기(다시 싹과 뿌리가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에 잎의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생산량을 15% 이상 늘릴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답리차(논을 이용한 작물 재배)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 모양지구대는 지난 5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고창남중학교 등 3개소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모양지구대 3팀장인 외 순찰원들은 이날 청소년 우범지역을 점검,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활동 강화와 청소년 비행·탈선을 예방으로 선도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캠페인 실시 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해 귀가지도 및 상담 실시, 청소년 상담센터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순찰3팀장 박원성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가시적 예방순찰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폭력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로

임실군이 지역업체 수주 및 하도급, 자재 구매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북도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군은 민선 6기 군정 방침인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평소 부서장 간 부회이나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배려에 노력해왔다.

또한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주 및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전문업체를 우선 배려해 영세 업체의 입찰 및 시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자재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심민 군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